



장수군 공직자 6명, 인재 육성 장학금 600만원 기탁

(재)장수군에해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올해 1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군 간부 공무원 6명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지난 15일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에는 조윤경 재무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이영숙 의료지원과장, 서운정 의회사무과장, 김강수 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 생활의 중요한 이정표인 사무관 승진의 기쁨을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기탁을 결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다원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안전보건관리자 등 80명 대상 예방 교육

정읍시가 민간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다지고 현장 재해를 막고자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제1차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관리 역량을 키워 불의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단에는 신상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이 올랐다. 그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울러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되는 위험성 평가 실행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경찰서, 화재상황 대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

장수경찰서(서장 이여정)는 16일 경찰서 청사 및 주차장에서 경찰관 40명과 소방관 10여 명과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과 신속한 대피 요령, 인명 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과 같은 체험형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또한 장수경찰서는 화재 발생 상황을 가장해 대피반, 소화반, 의료반, 급수반 등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와 역할 수행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청사 내 중요 서류를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는 훈련을 전개하며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마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대병원, 암생존자 주간 맞아 산림치유 캠페인

암생존자 40여 명 숲에서 힐링...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심신 회복 지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암생존자 주간에 맞아 암생존자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치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16일 전북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도내 암생존자 40여 명이 참여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6월 첫째 주 일요일은 '암생존자의 날(National Cancer Survivors Day)'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국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암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암센터가 공동 지원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마련됐다. 국립대전체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숲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 피톤치드를 체험하는 '숲 길라잡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소도구 운동과 통나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암생존자는 "긴 치료 과정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숲에서 치유할 수 있었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는 자신감과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송은기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장은 "암 치료를 마친 생존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암생존자들의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암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행사가 따뜻한 응원이 됐기를 바란다"며 "암생존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보건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는 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다학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 시민 인지강화교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기억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고위험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 강화 교실을 오는 16일~7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억력(ON) 프로그램은 기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발굴된 경도인지장애와 인지 저하 등 기억력 장애를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활동으로, 남원시 치매안심센터 1층 쉼터에서 주 2회(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총 8회기가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두근두근 뇌 운동'과 치매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는 물론 운동 및 향기요법 등 한층 직접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와 기억력 강화를 통해 치매가 예방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각종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남원시 치매안심센터(063-620-771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합동단속

남원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남원시청 교통과와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소방관서 동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연중 분기별로 시행되며, 2분기 단속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화전 주변 반쯤 민원 발생 구간과 소방차 접근 및 급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은 남원시 단속부서가 중심이 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되고, 단속 이후에는 결과를 취합·분석해 상습 구간의 불법 주차차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남원소방서 인스타그램 및 시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단속 1~2주 전부터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면 지사협, 2026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임실군 관촌면지사협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지현, 조래춘)는 지난 15일,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체 특화사업인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2차)'의 지원 대상 및 추진 시기 등 운영 계획과 협의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반기 특화사업으로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1차) △사랑방행 나눔사업 △가정의달 카네이션 꽃바구니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하반기에는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2차) △추석명절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음악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 주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까지 이틀간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동아시아 음악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민속국악원, 아시아음악연구학회(Society for Asian Music Studies, SAMS),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 국악학과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중국·독일 등 국내외의 연구자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학술대회 이틀간 총 25개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전통음악

의 역사와 전승, 문화 간 교류, 무형유산, 음악교육, 지역문화 등 동아시아 음악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주요 발표는 월곡 '춘향전'의 각색과 해의 보급, 한·중 디지털 기반 문화교류, 전통예술의 현대적 부흥, 판소리 '적벽가'와 중국 일제우 고사 '삼국'의 음악적 특징 비교, 한·중 불교음악 비교, 독일 내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전통무용 전승 등이 다뤄졌다.

특히 동아시아 음악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온 흐름을 살피고, 전통음악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국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877

익산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8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8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궁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궁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